

현실적인 불법 복사·복제 근절대책을

제16회 출판포럼 '도서 불법복사·복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지난달 17일 '도서 불법 복사·복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16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 1월 21일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학술·전문도서 출판 중단 위기를 선언하면서 야기된 불법 무단 복사·복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많은 출판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연간 피해액 1천5백억원에 달해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강희일 회장은 불법 복사·복제의 실태와 그 피해상황, 불법 복사·복제 근절을 위한 출판계 활동, 향후 과제와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 수위 넘은 불법 복사·복제 실태'를 발표했다. 강희일은 "우리나라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는 IMF 상황 하에서 출판계의 존립을 흔들어 놓을 만큼 심각해져, 이제는 출판업계의 제한된 힘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실제 불법 복사·복제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했다. 강희일에 따르면, 복사비용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약 1512억원, 복사본 보유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142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강희장은 그간 출판계가 '불법 복사·복제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출판 중단 위기 선언을 계기로 문화관광부와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향후 요망 사항으로 정부에는 저작권법상에 '판면권(조판·필름)과 출판권' 보호 조항의 신설, '준사법권제도' 마련,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하고 출판계에는 불법 복사·복제에 대한 출판인들의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불법 복사·복제 근절방안'이라는 주제로 불법 복사·복제의 개념, 불법 복사 방지의 선결 조건,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실장은 "복사는 복



지난달 17일 출협 강당에서 열린 '불법복사' 근절대책에 관한 출판포럼.

제의 한 유형으로 문헌 복사 또는 복사 복제라 일컫는다"며 저작권법상의 이른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로 나눴다.

이에 선결조건으로 물건의 소유자나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해당 물건이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산권은 권리 주체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없이는 보호가 잘 안된다는 점을 숙지해 법적 대응과 더불어 우리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인 대응방안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를 개정해, 저작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검찰이 직접 공소권을 행사하고 불법 복사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 실제적 접근방안으로 저작자 자체가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문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같은 권리자 단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과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유광중 회장, 전국대학교재공급인협회의 이인기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황이남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불법 복사·복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그 현실적 대응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불법 복사·복제에 대한 출판계 위기의식을 잘 반영했다.

— 김연수 기자

다음에는 있다 4

다름이 '행운'이다



일전에 **야근** 하던 날이었습니다.
깜박 잠들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에 잠이 깰습니다.
그런데 글썽 마우스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님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저러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냐?"
"맞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을 날려서라도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아줘야 해."
너무 기특한 나머지 인기척을 내니까
아니, 마우스들이 죽은 척을 하지 됩니까!
정말 전 **일복도 많은** 농입니다.

다름은 차고 기우는 달(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테크닉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달입니다.
기획에서 제작까지 섬세한 손길로 꽉찬 달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출판디자인의 모든 것 | 시간 커뮤니케이션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 BI · Annual Report 출판 커뮤니케이션 잡지 · 시사 · 사회문화 · 포지티브 (인행보, 이데, 학습서) ·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광고 커뮤니케이션 신문광고 · 정제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